

법률연맹 총본부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출신 국회의원 고용진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평가받아 '20대 국회 종합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 기억이 선합니다. 올해도 21대 국회 1차년도를 평가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더 뜻깊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하여 선정해주신 만큼,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기쁨이 큼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20대 회기와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곧바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무거운 역할이라 생각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난 1년간 타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법안은 정부의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 정책에 발맞추어 발의, 통과시킨 세제개편 3법입니다. 단기보유자와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를 인상하였고, 법인의 주택양도차익 추가세율을 부과하였으며, 과세표준 94억 초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투기 목적 주택거래를 방지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수요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집값 안정과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밖에 한국은행이 이익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기보다는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의 소비세를 면세하여 수소 생산 원가를 낮추고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고용 안전망 마련에 필요한 적시적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기에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상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에도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07. 02. 국회의원 고 용 진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입니다.

‘헌정대상’을 수여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대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380만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경제, 통상,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담장 안으로 가져와 입법과 정책으로 만들 수 있게 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총 48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7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1호 법안이었던 영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협상에서 밀리지 않도록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협의권자에 추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개별 중소기업을 위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정부 시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수여하신 헌정대상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키우는 일에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중추, 중소기업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고, 상생협력, 공정경제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주관의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족한 제가 훌륭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년간 국민 여러분과 용인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성과보다 과제가 더욱 많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군 시스템의 개선 등 국방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풀어가야 할 용인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용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김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주고 계신 법률연맹총본부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처음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을 통해 인정을 받은 것이 더 힘차게 의정활동에 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일을 막고자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을 개정하는 '공정병역 5법'을 발의하여 병역 기피를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등 다양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고자 하였고, 유튜브 '주블리 김병주' 채널을 통해 안보를 바르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부상하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42년간 족쇄처럼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었기에 우주까지 확대된 전장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률연맹총본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하고, 민주국가의 상징인 의회 발전과 유권자 정보를 향상하기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더 멋진 나라로 만들고, 국민께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회의원 김 병 주

법률연맹 “제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전주시 병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주시병 국회의원 김성주입니다.

먼저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해주신 법률연맹 총본부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1대 국회의 첫해가 지났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유행했던 코로나19는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방역 대책 마련에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 간사로서 방역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안정적 제도 실현을 위한 입법 마련에 힘썼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외에도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장애의 유무, 거주 지역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켜온 저의 정치철학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강화, 탈시설 지원,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 완화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4년 중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이 제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소득보장과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하여 의료 및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을 이런 과제를 더욱 책임지고 성실하게 해결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분 한분 모두가 보건·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안녕하십니까. 대구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 예술, 체육,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안소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주요 대표발의 법안으로는 ‘구급차 이송방해 금지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 ‘집회 시위 금지법’, 웹툰작가의 권익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만화진흥법’,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와 균형있는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대표발의 법안 중 본회의 통과비율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실적 쌓기용 입법이 아닌 국민의 불편부당함 해결과 불합리함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지향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를 위해 ‘관광산업 회복 대정부 건의서’ 제출,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위한 5가지 정책제언’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국정감사 국민민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초선의원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받게 됨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2.

국회의원 김 승 수

<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 >

국회의원 김영배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만 1년이 지난 지금, 초선 국회의원으로 이번 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총선에 출마하며 ‘민심을 받들어 현장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주야장천 달려온 1년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 1일을 기점으로 제가 대표발의 한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입법기관으로 가졌던 그간의 고민과 노력들이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라 생각돼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더 가까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날카롭게 의정활동에 임하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구직자, 실업자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의도에만 피어있는 화려한 꽃’이 아닌 민생의 혈로를 뚫는 현장 기반 정치로 국민들께 위안과 희망이 되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직 국민께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필요한 법이 적시에 통과되어 국민의 안정과 민생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과 입, 손과 발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도 느낍니다.

21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4선 의원이지만, 초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하는 국회에 앞장서고, 동료 의원들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영등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영등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또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먼저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연맹총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연맹총본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정치성향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투표, 통과법안, 대표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의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수여하는 유서 깊은 상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다는 칭찬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1차년도 국회에서 저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계와 예술계의 현안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 등에 맞는 내용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 능력이 낮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78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상비 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변환코드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등 12건의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치·경제상황이지만 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통해 거둔 이러한 성과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메신저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7

국회의원 김예지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임기 첫 해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으로 당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생활에 임하면서 지방분권의 첫 단계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및 ‘보조금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실현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민생을 위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라는 격려로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과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 국회의원 김원이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포항북구 국회의원 김정재

21대 국회 1차연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대한민국 국회 헌정 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자유·정의·평화 범치민주사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올바른 탈 탄소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치인 출신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치적용, 보여주기식 사업들을 지적하고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간사로서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등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성가족부에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사건을 바라보고 피해자 보호·지원 책임의 본분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치·경제 상황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국민행복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수상하신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응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모범상) 수상 소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모범상 수상은 국민의 선량(選良)인 국회의원에게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듯 귀한 상까지 받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 영광을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돌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주국가의 상징인 의회발전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써주고 계신 연맹 관계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정책과 법안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하신 의무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동서화합’, ‘지역균형발전’, 지역구 여수의 ‘미래비전 제시’, 여순사건 특별법 등 ‘과거사 바로 세우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민심을 대변하면서, 전라선 고속철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에도 깊이 있게 접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대립과 갈등이 심한 우리 정치를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는 따뜻한 정치, 겸손한 정치로 바뀌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 같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상의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초선의 마음을 잃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지키며 성실하고 용기있게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헌정대상 감사 인사말 (국회의원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형배입니다. ‘21대 국회 1차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일꾼인 국회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늘 지켜보고, 잘하고 있는지 살펴주시는 법률연맹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애 많이 씁니다.

얼마 전,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으로 시작한 임기가 벌써 1년입니다.

낮설고 스스로의 부족함도 많이 느낀 지난 1년이었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기본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국회 개원 이후 열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해 법안 126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토론회도 65회 개최했습니다.

입법성과도 제법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발의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5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의 아픔을 위로하고, 5월 광주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시민의 자긍심을 조금이나마 키울 수 있어 다행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만들었습니다. 대표발의한 11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과를 헌정대상이라는 이름으로 격려를 받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받들며 시민 뜻대로 행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종합평가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박대출입니다.

입법·사법분야 공정성 감시, 법정치철학의 대중화, 법률운동을 해온 30년 전통의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방송발전 부문 모범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상의 영예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일정한 방송기간대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상품을 무료로 방송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 재승인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이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헌정대상 수상의원에 걸맞게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몸을 낮추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소비자 연맹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법률 소비자 연맹과 그 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일

국회의원 박대출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통과 권위의 시민단체 「법률연맹총본부」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 상을 받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보람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평가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연맹 가족 여러분께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수상을 결실이 아닌 출발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같은 평가를 받을 일을 실제로 해왔는지, 부족한 점은 혹시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을 다잡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주에 나서는 마음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고지를 향해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소속 당원입니다. 국회의 주된 일인 행정부 감시 감독 업무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정권을 창출해내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국회의원 박 완수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먼저 시민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법률연맹 총본부’에서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의 ‘격려와 신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 지난 1년은 ‘일하는 국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일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생과 정책도 놓치지 않는 의정활동과 ‘정책 국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교육계의 오래된 숙제이자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법 활동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교육위원회 여당간사를 맡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회의를 이끌어내고, 정쟁을 촉발하는 질의보다는 국가적 교육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 당시에는 국회 교육위 소관 모든 기관 구성원과 국민의 공익제보를 받는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교육종사자 15,046명 중 3,112명의 답변을 받아 국감질의와 서면질의에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고질적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회계감사의 주기적 실행, 수년간 교비와 지원금을 통해 국민 세금을 횡령했던 외국인학교의 부정 적발, 부실한 관리와 제출이 이뤄졌던 전국 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사들의 국외공무출장 보고서 분석과 제도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이자, 교육계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십 여년에 걸친 대안교육운동의 결실이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면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교육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계에 산적한 모든 문제점의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과 국정감사 당시 3,000여 건에 달하는 제보를 모두 파악해 반영하거나 답변해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세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입니다.

국회 의정활동 평가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수상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제21대 국회 1차년도 평가에서 국회 출석률, 법안 실적, 국정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을 심사한 데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일을 다시 시작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지만 국민을 대리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했고, 이에 대한 평가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정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21대 국회의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치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 민생을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울주군 서범수 의원입니다.

21대 국회 첫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해주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헌정대상'은 그 권위와 객관성이 입증된 상으로 2011년도부터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12개 분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주는 상입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 투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투표를 분야에서 지역(울산) 1위 의원으로 선정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오늘 주신 '헌정대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란다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응원해주신 울산 울주군의 지역주민 여러분께 돌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문

시민감시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에 선정된 데 매우 기쁩니다.

지난 1년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을 맡으면서 법률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나라를 위한 서영교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소중한 말씀을 잘 받들고, 21대 국회 임기 동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 서영교가 제대로 펼치겠습니다!

‘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정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활동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펜데믹의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세계 일류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일류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노력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드리우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길 꿈꾸며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2021. 07. 02

국회의원 성 일 종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입니다.

법률연맹총본부에서 주최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서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늘 성실한 감시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법률연맹총본부와 시민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량화된 지표들을 통해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오랜 노력과 그 성과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반이 되어갑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초반부터 ‘감염병에서 안전한 나라’ 그리고 ‘아이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염병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해결해왔고 ‘아이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들을 추적하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료인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와 ‘여성이 안심하고 맘껏 활동하는 나라’를 앞으로의 의정활동의 또 다른 지향점으로 세워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환자와 의료인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 현장을 살피며 국회와 의료계를 잇는 소통망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여성이 안심하고 맘껏 활동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생활 속에서부터 고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시스템 문제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만든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나은 대응 체계,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을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2021. 7. 2(금)

안녕하십니까? 안규백입니다.

힘차게 출발한 신축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도 어느덧 개원한 지 1년을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기에 헌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15대 국회부터 약 30년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운영하며 투명하고 성실한 국정감사를 위해 애써온 법률소비자 연맹으로부터 받는 상이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주신 표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소통과 대화의 단절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메우기 위해 더욱 발로 뛰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서로의 체온을 통한 소통은 할 수 없었지만, 화상으로, 유선으로, 끊임없이 방법을 강구하며 국민 여러분의 필요와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오늘의 상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용기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상을 거울삼아 항상 스스로를 책망하고 닦으며 올 하반기를 비롯한 남은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뜻 깊은 상을 수여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국회의원 / 헌정대상 수상>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이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안호영입니다.

‘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 대상’ 수상의 영예를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뜻깊은 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헌정대상은 법률 전문 NGO단체의 객관적인 지표와 엄정한 심사요건이 필요한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또 계속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발의·통과시켜온 법안,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의 모든 의정활동 역시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우선으로 제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세로 방역상황이 다시 엄중해졌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원팀이 되어 여러 차례 위기를 이겨내온 것처럼, 이번 확산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상 수상의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앓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법률소비자연맹이 입법성과, 회의출석 등 다양한 항목의 평가 기준을 반영한 종합결과로 성적우수위원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대구 북구(갑) 지역구 주민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평가를 위해 수고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가족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1대 국회가 출발한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는 입법활동에 소홀하지 않으며 내실있는 법을 만들고자 끊임 없이 현장과 소통해왔습니다.

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51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504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하며 경제·산업 발전부터 사회적약자 보호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선을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대구 북구갑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회의에도 빠짐없이 임하다 보니 이제는 동료의원들로부터 성실하고 똑심있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이 그간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수상을 위해 수고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라는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당한 정책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7.5. 국회의원 양금희

수 상 소 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입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상을 받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국민들께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뜻은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정치에 더욱 헌신하라는 무거운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21대 재선의원으로 현재 우리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농림수산업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차후 이러한 팬데믹이 오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들을 촘촘히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의 풀 한 포기라도 양지바른 곳에 옮겨 심겠다”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께 꿈과 희망을 주는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각 국회의원의 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발의한 법안 성적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원회 활동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선정한 우수의원에 포함된 것에 큰 영광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국회 모니터링을 위해 애써주신 김대인 상임공동대표·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 개원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아울러 결산 소위에 참여해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며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저의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와 신뢰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법은 의복과 같이 그들이 봉사해야 할 사람 몸에 꼭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 국회의원 윤재옥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법률소비자 연맹의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입법활동,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등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다선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했고, 그 어느 해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에 부족함도 없지 않았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헌정대상'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헌정대상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항상 지역구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들을 비롯한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국회의원 윤재옥

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지역구인 정읍과 고창주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제21대 국회에 등원했고,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를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고, 약속드린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도와 14개 시군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한 결과, 사상 첫 전북 국가예산 8조원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기후,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로서 국민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안 과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과거 국민들의 질타 대상이었던 ‘호통 국감, 막말과 말싸움 국감’이 아닌 ‘민생·정책 국감’을 국정감사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및 전국민고용보험,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분야 현안 과제와 홍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가습기살균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환경분야 현안 과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입법과 정책 개발 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21대 국회에 들어와 제1호 법안으로서 지난 총선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호 법안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환경노동 분야에 관련된 법안까지 총 90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왔던 의정활동을 되짚어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해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희 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법률소비자 연맹으로부터 5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는 영천시민, 청도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늘 초심을 담아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에 쉽 없이 매진하겠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먼저 「제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헌정대상 시상식」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개최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 준비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여러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께서 또 한 번 실망하고 무너진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초심을 다잡고 왜 여기에 왔는지, 누가 보내주었는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지를 언제나 떠올리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곁에서 항상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충청도민과 아산시민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병훈입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법률연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정대상 선정을 위해 밤낮으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모니터하며 30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해주신 김대인 총재님과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회 또한 감시와 견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의정활동과 입법성과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이끌며 따뜻한 조언과 따끔한 질책으로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주신 연맹의 활동 덕분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더욱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상식의 정치를 추구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법과 제도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정어린 격려와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헌정대상의 권위를 공고히 하며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률연맹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 상상력을 더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입법 방향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빈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에 이어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여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늘 초심을 잃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민생을 어루만지며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더욱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개혁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속도를 내며 유능한 혁신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과 열악한 지방의 현실을 충실히 대변하는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금보다 더 반가운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뜻깊은 '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여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공정하고 세심한 경제현장을 향한 국민의 격려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의 발전과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당시의 다짐을 떠올려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불평등을 바로잡고, 네거티브 규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통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정무위원으로서 주식시장의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상장회사법 제정,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가상자산업법 제정, 청년의 자본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업법 제정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벤치마크 단계에서 벗어나 선도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현장에 근거한 공정한 제도와 시장의 세심한 작동 원리가 적절히 조화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상은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공정한 기틀을 마련하라는 격려로 받겠습니다. 또한,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법률연맹>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법률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 대상에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체육 및 관광, 문화·예술계의 손실 보상 마련,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한 시간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은 코로나로 팍팍해진 국민의 삶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을 되찾고 일자리, 주거, 복지 등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와 법안을 각종 현안 해결 및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입니다.

먼저, 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에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20년이 넘도록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깊이 있게 분석·비판하고 평가해오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막중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도 끊임없이 성찰하고 쇄신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이어온 지난 노력은 국회가 국회답게 자리하고,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가 더욱 실현되며,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 자유가 증진되는 데에 든든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의 일천한 시민사회활동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오랫동안 그와 같은 노력을 이어오신 법률소비자연맹의 지난 역사가 너무나도 어렵고, 또 가치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소비자연맹과 그 구성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평소 국회의원들의 엄격한 의정활동 평가로 정평이 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최고의 권위상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지난해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데 이어 또 한번 저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해주신 김대인 총재님과 구성원 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수소경제 조기이행을 위한 대책마련, 전기차·수소차 인프라 구축, 석탄발전기 발전량 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근로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례의 추경을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비수도권 중심의 지역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합니다. 현장의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나가며 대안을 창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국정감사기간에 정부의 미진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먼저, 초선 의원으로 임기 첫해부터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날카로운 심사로 국정감사 내내 함께 고생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약 17년 동안 수많은 의뢰인을 대변한 변호사로서, 첫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국민을 대변하여 삶과 밀접한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입법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과제의 조속한 법률이행을 지적하고, 동시에 그동안 진행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하여 착오송금 제도 개선,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주식시장 공매도 문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제도개선 및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비금융 분야에서도 대우조선해양 피해 하도급업체 구제방안 문제를 비롯 대기업 갑질 횡포로 파산한 지역소기업 대표의 안타까운 사연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5G 서비스 부실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밝혀내는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금융 현실을 진단하고 산적한 과제들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가로막힌 경제와 민생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초심 그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국회의원 이종배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나 당, 언론 등 여러 곳에서 수상을 했지만,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의정활동 모니터와 평가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의 수상이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쁘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저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했을 뿐인데,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비롯한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상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시는 격려와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종배 올림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선정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별써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심부름을 하게 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등원 당시 제 마음속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국민의 불편한 삶을 바꾸는 정책’ 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열정과 의지도 있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공존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의정활동의 성실성뿐만 아니라 입법 성과, 정부 감시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 보내시는 국민의 기대에 나름은 부응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 는 국민의 명령은 듣기엔 쉽지만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저의 1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금 살펴 국민께 약속드린 저의 초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더욱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에 이뤄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상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2.

국회의원 이종성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30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상이라 여깁니다.

헌정대상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출석률과 법안 통과 실적, 국정 감사 성적 등 13개 항목을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 및 종합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기에 더욱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대정부질문과 비상설 특위 활동, 상임위 소위 활동 등 새로운 지표를 통해 평가한 방식은 양적 입법 활동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광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연제구민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헌정대상 수상은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2일

국회의원 이 주 환

먼저 저를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연맹’ 총본부 김대인 상임공동대표·총재님 및 실무자와 활동가 여러분, 법률연맹을 지지하고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길을 시작해, 서울시의회 의원과 강동구청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강동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전의 경험을 활용하되 신입생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새로 배워나가자 다짐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선배·동료들의 활동을 꼼꼼히 살피고 배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경험을 살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에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률연맹’의 이번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라는 응원과 격려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동주민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일

국회의원 이해식

헌정대상 수상소감

국회의원 이현승(부산 부산진구을/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회의원 이현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제15대 국회 이후로 우리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해온 법률연맹으로부터 수상하게 되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기능을 수행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하는 만큼, 누구보다 민심을 대변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격려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발전을 위해 앞장서주시는 법률연맹 관계자 여러분과 이번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정밀한 분석, 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법률연맹이 촉매제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도 국민과 더욱더 가까이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2021. 7. 2.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회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개최하여 국회 의정활동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어주신 법률연맹총본부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헌정대상<공로상/법률정의>이라는 의미있는 큰 상을 수여해주셔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숨가쁘게 1년을 보냈습니다. 법사위, 여가위를 비롯한 3개의 상임위원회, 저출생특위 등 7개의 당내 특위 활동을 하면서 올바른 정치와 법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힘이 진실이 아닌,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치 슬로건을 마음에 새기고 활동한 결과 <양육비 이행강화법>,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에 앞장섰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 따뜻하고 밝은 등불을 놓는데 미력이나마 역할 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하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 국민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05]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점식입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수고해주신 법률연맹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1대 국회에서 농수산 1번지 경남 통영·고성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굴껍데기, 멩게 등 수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촉진 도모 ▲도서지역 교통 환경 개선 ▲농어가 소득증대 및 세제혜택 확대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경제와 민생, 서민보호에 특히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 헌정대상 이라는 의미 있는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뜻깊은 의미를 되새겨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위와 전통의 법률전문 NGO 단체인 법률연맹도 더 큰 발전을 이루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훌륭한 단체로 뿌리 내리기를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21대 국회 개원하고 임기 첫 일 년간의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임기 첫째 평가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3년 동안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께 좋은 입법과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공적채무 강화 그리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미디어 제도 혁신 등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언론개혁·미디어 전문가로서 21대 국회에 들어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경험을 살려 개혁 입법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졌던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잡고,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2021. 7. 1(목)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조명희입니다.

21대 국회 첫해 동안, 300명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로 엄정하게 평가해 수여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현장 중심 정치’, ‘생산적인 의정활동’, ‘과학기술 기반 입법활동’을 위해 쏟아 온 그간의 노력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국민 권익을 대변해 온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상을 수여하는 것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달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의 무계를 알기 때문에 수상의 영예를 뒤로하고 제가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초심을 되새기게 됩니다. 지구관측 위성정보, 원격탐사를 연구해온 과학자로, 교수로, 벤처기업 CEO로 다양한 삶을 살아온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정치가 과학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은 100마일, 정치인은 3마일, 법률가는 1마일로 달린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치는 과학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은 과학의 명백한 실증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을 다루는 문제에 정치적 판단이나 비과학적 의사결정이 뒤섞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국회에서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입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 민생경제를 살리고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빛나고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선정에 감사드리며, 시민운동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법률소비자운동의 중심단체로 자리매김해온 법률소비자연맹의 저력이 더욱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지난해 3월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에 이어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업분야 전문성과 영향력을 두루 갖춘 시민단체로서, 언제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연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에 이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련 당차원의 정책조정 및 정책개발, 정부와의 정책협의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 개원 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국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우수한 지방인재 선발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기본법안’ 등 49건의 다양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중 10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꾸준한 의정활동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더욱 살피라는 격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문제 해결에는 꾸준하고 올곧은 의정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충실히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을 통한 법치민주사회 구현에 힘써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위와 전통이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균열을 점검·보완했고, 장애인 비례대표로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안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비롯하여 총 6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26개 장애인 단체 연속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숨 가쁘게 지나온 1년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웁니다.

오늘의 수상이 저에게 더욱 뜻깊습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최혜영의 의정활동을 격려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편안한 세상,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정대상을 수상하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민의 힘 소속 대구시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벌써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국민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하면 민생을 살리고 코로나 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그간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인정받는 것 같아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년 국회에 들어온 이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여하는 헌정대상은 제게 무척 과분한 상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말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추 경 호